

보도설명자료 (‘12. 1. 31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서울경제 “MOU 35건 중 성사 단1건, 상장폐지 등 후유증만 남겨” 보도에 대한 설명

1. 기사요지 (‘12.1.31. 서울경제)

- ①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대통령·총리·특사 등 국민이 외국을 방문해 체결한 해외 광물자원 개발 양해각서(MOU) 총 35건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
- ②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 밀어부쳤던 ‘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’.. 하지만 이 사업은 이후 실제 사업성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. 결국 사업을 추진했던 석유공사만 약 4억달러의 손실을 입음
- ③ 아랍에미리트(UAE) 유전 확보도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을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로 과장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. 또 최대 100% 지분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현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폭도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

- ① 2003년부터 대통령·총리·특사 등 국민이 외국을 방문해 체결한 해외 광물자원 개발 양해각서(MOU) 총 35건이며, 그 중 2건은 투자계약 체결되었고, 10건은 진행 중에 있음

* ‘한-FELIX社간 호주 유연탄 개발협력 MOU’

→ 미네르바(‘06.12), 아데나(‘06.12), 물라벤(‘08.1) 투자사업 연계

* 페루 페로밤바 철광 개발 협력 MOU(‘10.6, 특사) → 공동탐사 계약으로 연계(‘11.5)

- ②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지역에서 진행 중인 5개 광구*에 대한 탐사 사업으로서, 현재 사업

진행 중에 있음

* Bazian, Qush tappa, Sangaw North, Sangaw South, Hawler

- 현재까지 Bazian, Qush tappa, Sangaw North, Sangaw South 4개 광구에 대해서는 각각 1공씩 시추한 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, Hawler 광구는 시추 준비 중에 있음
 - 수차례 시추작업을 거쳐 상업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탐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, 탐사 시추작업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탐사비 손실만 보고 빈손으로 물러났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임
- ③ ‘11.3월 정부가 UAE와 맺은 MOU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며, 우선적 참여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
 - 동 MOU상 한국기업에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생산 광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
 - 이는 금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메이저 회사들과의 광권 연장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보장된 것
 - 아부다비 정부가 유전개발과 관련 우리나라와 같은 참여 기회를 보장한 사례는 없었음

※ 현재 UAE에는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일본 등 극소수 국가의 업체만 참여하고 있음

또한 3개 미개발 광구의 지분 확보 규모에 대해서도 당시 설명했던 대로 최대 100% 지분 획득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, 참여폭이 부풀려진 것은 아님

☞ 자료문의 : 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(02-2110-5530)

지경부 광물자원팀 팀장 전웅길(02-2110-5530)

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김정두 사무관(02-2110-5526)

지경부 광물자원팀 김상우 사무관(02-2110-5530)